

통일부 장관, WHO 사무총장 면담

-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오늘(10.21.)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(Tedros Adhanom Ghebreyesus) 세계보건기구(WHO) 사무총장과 면담을 진행했다.
- 정 장관은 상호 호혜성에 기반한 우리 정부의 보건협력 추진방향을 설명하고, WHO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.
 - 통일부와 WHO는 2006년 ‘북한 영유아 지원사업’을 계기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왔음을 언급하며, 앞으로도 남북 주민 모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보건의료 협력을 이어나갈 것을 제안했다.
 - 특히, 정 장관은 7년여간의 남북관계 단절 상황 속에서 WHO를 비롯한 국제기구가 북한과의 대화, 협력 재개를 위한 가교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했다.
-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은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공존을 위한 통일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, WHO와 통일부의 오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소통과 협력을 이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.

붙임: 면담 사진

담당 부서	평화교류실 인도지원과	책임자	과 장	이효정 (02-2100-5930)
		담당자	사무관	최서영 (02-2100-5931)

